조계사 새 주지 토진스님

“대중스님 모시고 신도회와 화합”

3월22일 임명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왼쪽)이 지난 22일 신임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데 이어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이 토진스님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서울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에 토진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임 주지인 세민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 토진스님을 신임 주지로 임명하게 됐다”면서 “전임 주지 못지않게 신도회와 잘 화합해 조계사와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주지 토진스님은 “부처님과 총무원의 대중 스님을 잘 모시고 신도회와 잘 화합해 원장 스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은 “자비나눔의 가장 큰 실천덕목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겠다”면서 “토진스님의 주지 임명을 환영하며 주지 스님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축하했다.

“한국불교 발전 이끌어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부

토진스님은 월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지난 1980년 법주사에서 이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국장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서울 수국사 주지, 조계사 부주지를 역임했으며 13대에 이어 14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집전은 내가 최고!”

조계사 청년회(회장 고경명)는 지난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9회 집전대회 및 절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청년회원 및 일반불자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개인부문 28개팀과 단체부문 6개팀이 출전했으며, 조계사 청년회 지혜부가 단체부문 대상인 장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개인부문에서는 이소연 씨가 집전부문 맑은소리상을, 송현승 씨가 절하기 부문 바른정진상을 각각 수상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포교사 1차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은 지난 21일 대전 보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제15회 포교사 자격고시 필기시험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합격자 632명이 참석했으며, 김병주 포교원 포교팀장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직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곽명희 포교사단 부단장이 ‘포교사단에 대한 소개와 단원의무와 활동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포교부장 계성스님은 ‘포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예비 포교사들은 4개월 동안 소양교육과 수련회 등의 수행평가를 거쳐 2차 합격해야 포교사 품수를 받고 정식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포교사 고시에 합격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4개월 동안 실시하는 포교 활동평가에 성실히 임해서 모두가 품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시영 충남지사장 lsy@ibulgyo.com

‘4대강 살리는 환경법회’ 연다

4월17일 조계사 “동체대비 실천” 서원

불교계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고 있는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환경법회를 개최한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계 시민단체 및 신행단체, 사찰 등은 오는 4월17일 서울 조계사에서 ‘한반도 국토(4대강)를 구하기 위한 환경법회’를 봉행한다.

‘뭇 생명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환경법회는 국민과 불자들에게 4대강 반대의 당위성과 환경의식을 확산하는 동시에 불교계의 4대강 반대 활동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는 고불문 봉독을 시작으로 국토파괴 현장 고발, 대통령에게 띄우는 공개편지, 강 천도재, 생명의 종 33타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여강선원장 수경스님의 ‘생명살림의 길’을 주제로 한 연설과 4대강 반대의 의미를 담은 국토보전선언의 시간도 마련됐다. 환경법회추진위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진행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환경과 생명의 터전을 파괴함으로써 대량살생을 전제로 한다”면서 “바로 이 시대야말로 불자가 나서서 동체대비를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함안사암聯 불교문화대학 개교

“참된 자비행 구현하는 불자” 양성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부처님 법음과 함께 문화생활도 향유할 수 있는 전법도량이 문을 열었다.

경남 함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광스님, 칠보사 주지)는 지난 17일 가야읍 말산리에 마련한 학사에서 함안불교문화대학 첫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불교문화대학 개설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불교교육과 전법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한 사찰이 아닌 지역 사암 스님 전체가 뜻을 모아 동참해 더욱 의미가 깊다. 이에 따라 강좌도 스님들끼리 서로 분담해 내용까지 풍부하게 꾸미는 것이 가능했다. 교리 강의뿐 아니라 문화적 혜택이 적은 주민들의 갈증까지 해소시켜 주는 특강도 즐비하다.

송학사 혜능스님이 지도법사로 교리반을 맡아 기초교리를 강의하며, 학장 정광스님 등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특강을 진행하게 된다. 음악반은 성불암 덕산스님이 찬불가를 지도하며, 건강반은 선단식(禪斷食) 수련법으로 유명한 성관음사 원기스님이 맡게 된다. 학장 정광스님은 “참된 신행생활을 통해 함안지역을 위해 자비행을 구현하는 불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권순학 경남서부지사장 gyonam108@ibulgyo.com

소림사 참회산림법회…30일부터 일주일

부산 소림사(주지 혜전스님)는 오는 30일부터 4월5일까지 7일 동안 오전10시 경내 무량수전에서 제33회 참회산림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산림법회에는 입제일인 30일 혜인스님(단양 광덕사 회주)의 법문을 시작으로 31일 묘허스님(단양 방곡사 회주), 4월1일 통광스님(쌍계사승가대학장), 4월2일 정관스님(부산 영주암 회주), 4월3일 밀운스님(봉선사 회주), 4월4일 정여스님(범어사 주지), 4월5일 종범스님(전 중앙승가대학 총장) 등이 법사로 나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법석을 연다.

최병문 부산지사장 ch4717@ibulgyo.com

대불련 신임 부산동문회장 이성균씨

“동문간 상호유대 강화하겠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동문회 신임 회장에 이성균씨가 선출됐다. 대불련 부산동문회는 지난 17일 부산 소림사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동문회는 제9대 회장에 이성균(부경대 75학번·사진)씨를 선출한 데 이어, 2010년 중점사업계획으로 사단법인 설립과 동문회 명부 발간, 재학생 지원 사업, 대불련 총동문회 참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성균 신임회장은 “회원수첩을 만들어 상호 연락과 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문 부산지사장

태고종 제102회 임시종회

3월31일 전통문화전승관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원봉스님)가 오는 31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02회 임시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2009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과 전승관 국고보조금 재정산 집행이행안 및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